

[원빈스님의 천수경 5] 성불의 길을 약속하다. 소원성취의 진짜 조건

청보리심은

1.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에게 중생을 위한 대비주법문을 가지고 있으니 설해도 되느냐고 청한다.
2. 천수행자가 관세음보살에게 청하고 다시 듣는다.

권보리심은 보리심 수행을 하기를 권함. 유통본의 중요 내용에 권수이익이 있다.

권보리심이 권하는 이익 6가지 (권수 이익 6가지)

1. 천수경은 마음의 불만족이 있는 자(소원성취 기도법) : 속령만족제희구
2. 악업을 참회하는 기도법 : 천수경 기도 즉 소참(십악 참회)과 대참(자비도량참법 즉 백중) 불교식 고해성사
3. 두려움에 빠진 자의 기도법 : 천룡중성동자호 즉 호법천신들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는 공부이다.
4. 일상 속에서 걱정 많은 자 불안감 해소 : 삼매 수행 즉 지관 수행이다.
5. 고통 해결하는 기도법 : 사바세계 즉 참을 일이 많은 세계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6. 번뇌와 고통이 다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리심 완성하고 증득**하겠다.

원보리심 구성

십원 + 육향 + 11보살(염불)

문장을 그로 해석해 보면

나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송하고 귀의하며(아금칭송서귀의)
보리심을 서약할 것이니 마음의 소원 따라(소원종심실원만)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수문의 마지막 두 문장

아금칭송서귀의 소원종심실원만

나는 관세음 보살을 칭송하고 귀의하며, **보리심을 서약할 것이니**
마음의 소원따라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원, 육향, 11보살은 보리심을 약속한 것이다.

(3) 관세음보살의 본원을 말함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동남동녀가 있어 이 다라니를 외워 지니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먼저 저를 따라 이러한 **발원**을 해야 합니다.

천수경 수행의 중심은 이 다라니는 즉 신묘장구 대다라니이다. 이 수행법이 천수경이다.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 1)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 2) 저를 따라 이러한 발원을 해야한다.
- 3) 그리고 염불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주력수행이다.

본인이 정말 원하고,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정구업진언부터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에서는 **본수행**이라 한다.

본수행 전에 중요한 것이 예비 수행이다.

예비 수행에 해당하는 것이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이다.

청, 권보리심에서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자비롭다고 하고,

원보리심에서는 이와 같이 저를 따라 발원해야 한다고 한다.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예비 수행으로 **법다운 마음을 일으킨다.**

절에서 기도하려면 간절해야 한다.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예비 수행을 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행한다.

간절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비수행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대비신주를 외우고서도 삼악도에 떨어진다면 저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대비신주를 외우는 자로써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대비신주를 외우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광대함에 따라 외우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통이다.

이것이 천수경 소원 성취 기도와 수행의 대전제이다.

그런데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예비 수행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천수경에서 소원성취를 이루는 원리는

1) 자비로운 마음과 (예비수행)

2) 대비주를 외워야 한다.(본수행)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예비 수행으로 법다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소원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비 수행이 더 중요하다.

예비 수행은 보리심을 품고 원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본 수행을 하면 **빨리 수행**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예비 수행의 중요성이 생략되어 있다.

그냥 대비주를 외우면 된다고 교육되었다. 예비 수행이 더욱 중요하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쁜 목적으로 대비주를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예비수행으로 올

바른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비심이 없다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저를 따라 이런 발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천수경을 3문 8단으로 나누고

천수 보리심 명상으로 나눈 이유는

저를 따라 이런 발원을 해야 한다는 말이 명상 유도문이다.

보리심은 이렇게 이루어야 한다는 유도문이다.

십원은 현행 천수경과 같다.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나니 : 나무대비관세음

원하건데 제가 속히 모든 법을 알아지이다. : 원아속지일체법

제가 만약 칼산 지옥을 향하면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 육향

광본 천수경의 내용이 요약된 것이 현행 천수경이다.

그리고 왜 염불을 하느냐

(4) 대비신주 외우는 공덕을 말하고 관세음의 본원을 다시 보임

이러한 발원을 하고 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제 이름(관세음보살)을 칭명한 다음 다시 저의 스승이신 아미타불을 칭념한 다음 이 신묘한 다라니를 외우되, 하룻밤에 일곱 번씩 세 번이나 (21씩) 일곱 번씩 일곱 번(49번)을 외우면 몸 가운데 있는 백천만 억겁 동안 나고 죽으면서 지은 큰 죄를 없애게 됩니다.

십원과 육향이 보리심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귀의와 서원이 끝난 후에는 열 한가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을 염불하고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의 본사이신 나무아미타불 염불까지 마치면, 비로써 마음의 준비 과정인 관세음보살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보리심을 지니는 예비 수행을 마치는 것입니다.

광본을 근거로 원보리심의 구조와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무대비관세음(칭송, 귀의) + 십원과 육향(서원) + 11보살(염불) = 원보리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보리심에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디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한다. <입보살행론>

보리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배워야 하는 것이 입보살행론이다.

남방불교에서는 법구경을 중요시한다.

티벳 불교에서는 입보살행론을 외운다.

티벳 불교는 보리심에서 시작하여 보리심으로 끝낸다.

티벳 불교를 보리심 불교라 한다. 인도불교가 보리심 불교라고 한다.

보리심 : 원보리심, 행보리심, 증보리심, 성불로 가는 여행

원보리심 : 결단을 내리는 것.

행보리심 : 실천할 때까지의 여정

증보리심 : 실천하여 도달함.

보리심은 성불 여행이다.

권보리심의 이익을 권보리심에서 설하고 그래도 원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니

1. 원보리심에서 귀의하는 염불하고
2. 약속하도록 하고
3. 마지막에 염불하는 것을 도장 찍는다.

즉 보리심에 대한 계약이다.

십원 : 성불 여행 지도

수행의 목적지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 : 일체법에 도달하는 법. 총론이며 목적지를 밝힘

천수 행자가 첫 번째로 맹세하는 내용은 속히 일체법을 증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체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못 해석하면, 십원문의 내용이 원보리심임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석가부처님도 분명 아라한입니다. 하지만 아라한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아라한으로서 그 별명은 일체지자입니다. 일체지는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걸림없이 모두 안다.

일체지를 증득하겠다는 서원이 바로 원아속지일체법의 내용이다. 즉 성불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혁명적인 대승의 선언이다.

천수경은 대승경전으로 성불을 목적으로 한다.

일체지는 18불공법이다. 부처님은 알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원아속지일체법은 즉 성불을 향하여 일체지를 이루겠다는 소원이다.

원아속지일체법은 원보리심의 총론이다.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총론을 다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뒤의 9가지 즉 별론이다.